

서늘한 바람과 함께

공포영화 세계로 빠져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공포와 악몽에 관한 두 편의 영화가 9월 극장가의 문을 두드린다. 공포영화 '그것(IT)'과 판타지영화 '몬스터콜'은 장르를 전혀 다르지만, 둘 다 공포 혹은 악몽을 이겨내고 한 뼘 더 성장하는 10대의 이야기를 그렸다.

오는 7일 개봉하는 '그것'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이 1986년에 펴낸 동명의 소설이 원작이다. 독창적이면서 기괴한 판타지적인 상상력, 그리고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로 독자들을 사로잡은 책이다.

'그것'의 무대는 아이들의 실종 사건이 유난히 많이 일어나는 미국 메인주의 작은 마을 데리. 빌의 동생은 비가 퍼붓던 어느 날, 빌이 만들어 준 종이배를 띄우려고 나갔다가 길가의 배수관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로부터 1년 뒤, 빌이 속한 '루저 클럽' 멤버 7명은 실종된 빌의 동생을 찾으러 숲으로 가고, 그 뒤 이상한 일들을 겪는다.

13살인 이들은 모두 학교에서 폭력과 놀림을 당하는 외톨이들. 말을 더듬는 빌부터 두꺼운 안경을 쓰고 수다스러운 리지, 아빠의 학대에 시달리는 흥일점 베벌리,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혀 약산자를 지니고 다니는 에디, 13살을 앞두고 유대교 성인식을 준비해야 하는 스탠리, 똥통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벤, 유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마이크 등이 그 멤버이다.

이 멤버들 앞에 27년만 나타나 어린이들을 잡아먹

'빨간 풍선, 피의 빼어로' 스티브킹 '그것'

31년만에 영화화...박찬욱 촬영 감독 맡아

'장르에 감성 한스폰' 영화 '몬스터 콜'

공포·악몽 딛고 성장하는 10대 이야기 그려

는다는 빨간 풍선을 든 빼어로 '그것'이 등장한다. 그것의 모습은 매년 다르다. 빌에게는 실종된 동생의 모습으로, 베벌리에게는 아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등 멤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모습으로 변신해 공포를 자극한다.

영화는 1000 페이지가 넘는 원작을 134분에 담아냈다. 원작 소설은 루저클럽 멤버가 그 사건을 겪고 27년이 지나 성인이 된 모습으로 시작한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고 미국 전역에서 살아가던 이들은 '그것'이 다시 등장했다는 전화를 받고 어린 시절 맹세에 따라 다시 모인다.

영화는 이런 과정을 모두 생각하고 오롯이 루저클럽 멤버들의 어린 시절에 초점을 맞췄다. 성인소설에 가까웠던 원작과 달리 청소년 영화 분위기를 풍기지만, 그렇다고 공포나 감동이 덜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튀어나올지 몰라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한다.

그것의 공포는 멤버들의 우정마저 뒤흔들어놓는다. 그러나 결국 연대를 통해 공포를 극복하고 적을 물리치는 모습은 감동을 준다.

열세 살다운 순수함이 묻어나는 대화와 풋풋하면서 서툰 첫사랑을 하는 이들의 모습은 긴장 속에서도 관객을 미소 짓게 한다. 원작은 1950년대가 배경이지만, 영화는 1980년대 후반으로 무대를 옮겼다. 미국의 보이그룹 '뉴키즈 온 더 블록'의 포스터 등 80년대 청소년기를 보낸 어른들이라면 반갑게 느껴질 만한 소품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공포영화 '마마'로 데뷔한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박찬욱 감독과 '올드보이', '박쥐' 등의 작업을 함께한 정정호 촬영 감독이 촬영을 맡았다. 빌 역의 제이든 리버홀 등 아역 배우들의 명연기가 빛나는 작품이다.

14일 개봉하는 '몬스터 콜'은 죽음을 앞



둔 엄마와 함께 사는 한 소년이 숨기고 싶었던 비밀과 마주하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아픈 엄마와 단둘이 사는 코너. 매일 밤, 남따라지에서 엄마의 손을 놓치는 악몽을 꾸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밤 12시 7분만 되면 집 앞에 있던 거대한 나무가 몬스터로 변해 찾아온다.

나무 몬스터는 코너에게 3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그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번에는 코너가 본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몬스터가 들려주는 동화는 권선징악의 흔한 스토리가 아니다. 등장인물들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 착한 줄 알았던 왕자는 알고 보니 사람을 죽였고, 마녀인 줄 알았던 왕비는 피해자인 식이다. 몬스터는 현실에서도 무조건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은 없다는 교훈을 코너에게 들려준다.

코너는 몬스터에게 결국 숨기고 싶었던 자신만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이중성에 관한 것이어서 관객들은 마치 무방비 상태에서 허를 찔린 듯한 오싹한 충격과 감동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에 매일 밤 12시 7분만 되면 코너가 왜 악몽에서 깨는지의 사연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울음을 삼키게 된다.

코너를 연기한 루이스 맥더켈을 비롯해 아픈 엄마 역을 맡은 펠리시티 존스, 할머니 역의 시거니 위버, 몬스터의 목소리를 담당할 리암 니슨 등 연기파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돋보인다. 아티스트 30명의 오랜 수작업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만들어진 거대한 나무 몬스터도 주인공 역할을 당당히 해냈다. 후안 안토니오 바요나 감독이 스크린에 옮겼다. /연합뉴스

“말보단 행동” 옥택연 현역 입대

허리디스크 극복...가족·멤버만 배웅

그림 2PM의 멤버이자 연기자로 활동 중인 옥택연(29·사진)이 4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옥택연이 지난 4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백마부대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조용히 입대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가족과 멤버들만 배웅했다”고 밝혔다.



옥택연은 그간 허리디스크도 수술로 극복하며 현역 복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소속사는 또 옥택연이 주연으로 출연 중인 OCN 주말극 '구해줘'는 반(사)전제작자 드라마로 촬영과 종방편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구해줘' 제작발표회에서 군 문제와 관련해 “올해는 정말 (군대에) 가고 싶다. 병무청에서 불러주면 갈 것이다. 이번 작품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택시운전사' 미아카데미 작품작 선정

송강호 '사도' '밀정' 이어 3년 연속 진출

영화 '택시운전사'가 제90회 미국 아카데미영화상 외국어 영화부문 한국영화 작품작으로 선정됐다고 배급사 쇼박스(사)가 4일 밝혔다.

아카데미영화상의 외국어 영화부문은 나라별로 한 편만 등록할 수 있다.

주연 배우인 송강호는 제88회, 제89회 아카데미영화상 외국어 영화부문 한국 작품인 '사도'와 '밀정'에 이어 3년 연속 한국 대표작의 주연 배우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심사위원 측은 “‘택시운전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국의 특수성뿐 아니라 아시아 인권과 민주화 과정을 잘 표현했으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휴머니즘으로 많은 세계인에게 작품의 의미와 주제를 잘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영화적인 완성도 또한 뛰어난 작품이기에 심사위원들 모두 동의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올해 국내 극장가 최고 흥행작인 '택시운전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해 이를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광주까지 간 서울의 택시운전사 김만섭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신장 50 훈장 오순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디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찬 지도(재)	00 TV 소설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MBC 생방송 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유한국당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1대 100(재)	50 아트아시아 스페셜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50 생생정보 스페셜	30 시청자 TV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선(재)	4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냄비반침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번지 특집다큐 지구촌에 희망을 쏜다		20 헬로키키 동물교실	55 닥터 365
2	40 천상의 결핵선(재)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공부책상 위기 2	15 텔레몬스터 25 수비 스토리 2 55 별벌머드(재)	00 뉴스브리핑
3	35 팔도발상(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하하랜드 스페셜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1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재)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이름 없는 여자(재)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10 조작(재)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전문목 남도에 살아리랐다
7	00 KBS 뉴스 7 35 리얼토크, 날	50 이름 없는 여자	20 왕은 사랑한다(재)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5 별벌머드(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시사기획 창			
10	35 숲터 40 특선다큐 캄보디아 의류공정의 꿈과 눈물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30 KBS 뉴스라인 50 독립영화관 <울보 권투부>	10 (읽어주면 좋고 아니면)냄비반침	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0 불타는 청춘
12		35 유희열의 스케치북	15 2017 서울드라마어워즈 작품작 가타드 2부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15 소피 루비
05:30 세계전문목 아틀라스 <오상진의 베트남 피싱로드 -2부 강의 사람들>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장수의 비밀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얼큰돼지고기뚱배기와 달걀볶음>
06:00 한국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3:40 성난 물고기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07:45 출동! 슈퍼왕스	
08:00 덩동영 유치원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15:00 우주탐험가 쳇	19:30 EBS뉴스
15:15 꼬마기사 마이클	19:55 극한직업
15:30 오드렛, 이상한 아이들	20:40 다큐 오늘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알면 알수록 궁금한 미얀마 2부 샬을 달리는 순환열차>
16:00 엄마 깨우치	21:30 한국기행 <그곳에서 한 달만 2부 다시 허니문, 제주>
16:15 두다다(재)	21:50 EBS 다큐프라임 <소방안전 이야기>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45 덩동영 유치원1~2(재)	23:35 메디컬 다큐-7요일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17:3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24:30 한국영화특선 <위험한 상견례>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4	
19:00 몬카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5일(음 7월 15일 乙未)
子	48년생 격동을 예고하는 판세가 이루어질 것이니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자. 60년생 부화뇌동하다가는 곤란해질 수도 있다. 72년생 인연은 새로운 사람으로 작용력은 약하다고 본다. 84년생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행운의 숫자 : 54, 06	42년생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칠 것이다. 54년생 손을 맞잡고 함께 가자. 66년생 방도를 찾지 못해서 몹시 당황하는 모양 아니라, 78년생 필요한 것이지만 용동이 쉽지 않을 것이다. 90년생 생애의 주시해야 할 아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26, 03
丑	49년생 오늘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다. 61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73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85년생 아직 하면 놓칠 것이니 특별한 유념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3, 61	43년생 확실치 분간해 두어야 한다. 55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67년생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자. 79년생 새로운 변화를 꾀한다면 재물이 들어올 수 있다. 91년생 세부적으로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18
寅	50년생 진솔하게 털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74년생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무방하다. 86년생 큰 것만을 바라다가 작은 것마저 놓친다. 행운의 숫자 : 05, 44	44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나. 56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될 것이다. 68년생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전두구의 장이나 목전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를 만날 수 있다. 80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나. 행운의 숫자 : 51, 10
卯	51년생 남을 시키지 말고 자신이 직접 행함이 마땅하다. 63년생 당면하고 있는 정보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것이다. 75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87년생 정면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7, 22	45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57년생 상대적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려. 69년생 유동적 가변성을 인식해야 하리라. 81년생 크게 잃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하여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11, 27
辰	52년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처리하자. 64년생 오랫동안 정성을 다 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76년생 짧은 시간 동안에 잇따라 일어날 것이다. 88년생 근본과 배경을 파악해야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행운의 숫자 : 02, 30	46년생 뒷물이 많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58년생 여럿이 모여서 때를씩은 성공이다. 70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82년생 오늘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임하자. 행운의 숫자 : 21, 40
巳	53년생 오히려 상대가 더 버라고 있던 바기도 하다. 65년생 물이 사방에 보이나 모두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 77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도 치를 수 있는 법이다. 89년생 아을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행운의 숫자 : 17, 35	47년생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59년생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금전적으로 대박 나게 되어 있다. 71년생 착오로 인한 혼동의 피해가 상당할 수다. 83년생 본격적인 활동으로 들어가기에 양호한 시기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59, 64